

# “성형했다고 매도당해… 100번째 메달은 선수 인권 운동으로 딸 것”

지도자로 다시 승부  
‘팡공 검객’ 남현희

B1면에서 계속

## 쌍꺼풀, 인생을 가르치다

몸집은 작지만 어렸을 때부터 운동 신경이 남달랐다. 육상선수였던 아버지, 배구선수였던 어머니 피를 물려받았다. 중1 체력장 시간, 키 번호 2번이었는데 멀리뛰기에서 반 친구 51명 중 제일 멀리 뛰었다. 눈여겨본 펜싱부 코치가 제일 키 큰 51번 친구와 남현희 두 명을 펜싱부로 데려갔다.

– 펜싱 장비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30년 넘게 가내수공업으로 장갑 만드는 일을 해 저희 세 자매 뒷바라지를 했어요. 부모님이 장비 사준 적이 두 번 정도 밖에 없어요. 그것도 폴 세트는 아니고 필요한 것만. 고등학교 때 집에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기억도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여파로 대학(한국체육대) 1학년 때 집안 사정이 최악이었다. 세계청소년대회 출전을 위한 국내 선발전이 열렸다. 출전 자격은 3등까지. 참가비 일부는 자비 부담해야 했다. 8강에 올라 기쁜 마음에 전화했는데 엄마가 말했다. “현희야, 정말 미안한데 이번엔 그냥 포기해 줄 수 없겠나…” 눈물 머금고 4강 진출전에서 일부러 졌다.

작은 체격 때문에 달린 ‘국내용’이란 꼬리표를 떴 건 남현희 자신이었다. 대학 졸업 후 실업팀(성북구청)에 입단해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았다. 1000만원은 부모님 드리고, 나머지 1000만원으로 코치도 없이 국제 대회 4개에 참가해 2004년 아테네올림픽 출전권을 땀다. 이후 2005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플뢰레 단체전 첫 우승을 이끌며 갑자기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달콤함은 한 달도 못 갔다. 그 유명한 ‘성형 파문’ 이 터졌다. “아직도 찔끔하다. 한번은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 어떻게 된 건가요.  
“운동을 정말 격렬하게 하던 때라 눈두덩이 꺼지고, 볼이 폭 뛴어요. 겨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대표팀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 언니들도 좀 있었어요. 세계선수권을 끝으로 그해 대회 일정이 끝나 경기가 없는 기간이었어요. 국가대표 총감독, 당시 소속팀(서울시청) 코치진에게 성형 수술을 하



2008년 베이징올림픽 플뢰레 개인전에서 한국 여자 펜싱 최초로 은메달을 땀을 때.

조선일보 DB

성형은 개인의 선택인데 대회 없는 기간에 수술 운동 집중 안한다며 비난 얼굴 사진 찍어가고 징계

## 펜싱으로 다시 일어서

자격정지된 뒤엔 개인으로 국제대회 나가 잇따라 우승 출산후에도 두달만에 복귀

자랑스러운 엄마 되자 다짐  
인성교육하는 지도자 될 것  
남의 성공 시기하지 말고  
최선 다하며 때를 기다려야



남현희가 펜싱 팡트(팔다리를 쭉 뻗어 찌르는 공격 자세) 포즈를 취했다. 지도자로서 2막을 시작하는 지금이 “팡트 직전 단계 같다”고 했다. 아무리 동작에서 확실히 찔러야 득점하듯 지도자로서도 최선을 다해 펜싱 인생을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는 다.

이산영 영상미디어 기자

락받고 외박 나가는 주말에 쌍꺼풀 수술, 볼에 지방 주입하는 수술을 했어요. 의사는 간단한 수술이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었어요. 대한펜싱협회 게시판에 원색적인 욕설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일이 커지자 수술을 허락했던 지도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물렸다고 발뻘했어요.”

얼마 후 협회 관계자가 와서 말했다. “남현희 당장 (선수촌에서) 퇴출해!” 훈련 기간 중 무단으로 성형 수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선수 자격 2년 정지 중 징계가 내려졌다가 미리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6개월 정지로 줄었다. 시합하며 상대가 찌른 칼보다 주변 사람이 마음에 찌른 칼이 더 아팠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셨어요?  
“네. 중요한 건, 훈련 외 시간은 자유 시간이고 성형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펜싱 관계자가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사랑 문 것처럼 부어 있는 모습을 정면·좌우 다 찍어갔습니다. 인권은 없었습니다. 지도자를 알력 다툼에 제가 이용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은퇴 후 선수들 인권을 위해 애쓸 겁니다.”

그는 “정말 슬펐던 건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비인기 종목이라 설움, 팔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 펜싱을 인기 종목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나였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펜싱에 먹칠했던 생각에 죽고 싶었습니다.” – 그런데 ‘쌍꺼풀 사건’ 후 성격이 율았어요.

“당시엔 국내에서 선수 자격이 정지돼도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었어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국제 경기에서 잇따라 우승했어요. 17~24등 사이를 오가던 세계 랭킹이 4위권 안으로 급등했어요.” 펜싱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으킨 것도 펜싱이었다. –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한 살이라도 저보다 오래 산 사람들 말을 새겨들으려 해요. 검색창에 습관적으로 ‘힘이 되는 명언’을 넣어봅니다. 아는 동생이 보내준 김구 선생님 말씀도 좋아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선수 이력에서 처음 걷는 길이 많아 막막함 느낄 때마다 곱씹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엔 이런 말을 올렸다. “내가 홀몸한 건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심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 승리만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발렌티나 바첼리(이탈리아)와의 경기를 봐도 그렇고요(2008년 베이징올림픽 결승에서 만나 한 점 차이로 아깝게 졌고, 2012년 런던올림픽 3, 4위전에서 만나 또 패했다).

“런던올림픽 때 지고 나서 대기실 한쪽에 쭉그리고 앉아 평평 울었어요. 열악한 한국 펜싱 환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서럽더라고요. 그때 누가 등을 꼭 껴안아 주며 말했어요. ‘내가 네 맘 다 알아.’ 바첼리였습니다. 승자의 품격이었어요.”

## 또 다른 이름, 하이 엄마

– 작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은퇴 선언을 했는데 다시 복귀했지요?  
“관둔다고 했는데 2024년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회 도전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선수로서 영예로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격이 직전 올림픽 참가자라야 합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해야 출마할 수 있

단 얘기였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 그런데 왜 멈췄나요.  
“도저히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그사이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신세였습니다. 작년에 무릎 연골 제거 수술을 했어요. 운동 때문에 엉덩이뼈는 비정상적으로 자라 남들보다 2.5배 커졌어요. 아파도 도핑에 걸릴까 봐 약도 웬만하면 안 먹었어요. 온몸에 염증을 달고 삽니다. 살기 위해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맘도 아팠다”고 했다. “한국 스포츠 시스템이 나이 먹고 운동하려면 상당히 눈치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종목 불문하고 베테랑 선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은 없으면서, 결정적인 순간 한방 해주기 바랍니다. 지치지요.”

– 국제대회 메달이 딱 99개예요. 아쉽진 않습니까.  
“은퇴식에서 100번째 메달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후배들, 특히 여자 선수들 인권 위한 봉사로 대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메달은 저희 딸이 따줬으면 해요(웃음).” 딸이 3~4개월 전 펜싱을 시작했는데 곧잘 따라온다며 딸 바보 미소를 짓는다. 2013년 아이를 낳고 7년간 ‘워킹맘’으로 살았다. 한국 펜싱 국가대표 선수 최초의 ‘엄마 검객’. “체격이 왜소한 데다 펜싱이 한쪽으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임신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런던 올림픽 끝나고 기적적으로 임신했지요.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아이 이름을 ‘하이(hi·안녕)’라 지었어요.” – 출산 후 2개월 만에 복귀했군요.

“소속팀(성남시청)에서 빨리 복귀하기를 원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실력이 아깝다며 봐줄 테니 하라고 하셨어요.” – 운동과 육아, 병행하기가 어려웠습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돼 첫머리를 때놓고 선수촌에 들어가야 했어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훈련 끝나고 풀려 저녁에 나온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딸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자,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남현희는 “선수로서는 99점, 엄마로서는 50점, 아내로서는 ‘행점’이라고 했다. “남편(사이클 선수 공효석·33)이 같은 운동선수라 다 이해해주겠지 하면서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 – 운동선수들이 은퇴 무렵 막막하다고 하던데요.

“작년에 은퇴하겠다고 맘먹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 유치원 보내고 카페에 앉아 4시간씩 영어 책 펴놓고 씩씩했는데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공부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제야 카페에 앉아 공부하는 어린 친구들이 보였어요. 나는 왜 저나이에 공부하는 기쁨을 못 느꼈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 은퇴 후 계획은 뭔가요.

“지도자 길을 걸으려 합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인성 교육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달 말부터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만든 은퇴 선수·유소년 스포츠 지원 단체 ‘두드림 스포츠’에서 부회장을 맡아 사회 공헌도 하려고요.” – 지도자가 돼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요.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자. 누구에게나 성공의 순간은 옵니다. 타인과 나의 성공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1위는 늘 한 명뿐이니까요.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펜싱에 빗대면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결과. “팡트(fente·팔다리를 쭉 뻗어 찌르는 공격 자세) 직전 같다”고 했다. 마지막 일격(一擊) 일보(一步) 직전. 그전의 현란한 발놀림은 거들 뿐, 승패는 마지막 한 방에 달렸다. 펜싱 인생의 마무리 팡트로 지도자를 택한 남현희. 알레(allez·시작)! 2막 시작 구령이 울렸다. 남은 건 혼신의 팡트. 김미리 기자

# 교통사고로 미각 잃은 요리책 60권 저자… “단맛부터 조금씩 돌아왔죠”

## 음식전문가 말리나 스피러

말리나 스피러(Spieler·70)는 음식, 그리고 음식 맛보는 일이라면 세상 누구보다 자신있었다. 60권이 넘는 요리책을 냈고, 뉴욕타임스·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LA타임스·보나페티(Bon Appetit) 같은 주요 일간지와 음식전문지에 음식·레스토랑 칼럼을 썼으며, 미국 푸드네트워크와 영국 BBC 등의 음식 프로그램에 단골 출연한 음식 전문가다. 그런 그가 거짓말처럼 미각(味覺)을 잃었다. 지난 16~17일 서울에서 열린 ‘한식의 인문학 심포지엄’에 연사로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스피러는 “사고가 일어난 날은 하필이면 2011년 내 생일날이었다”고 했다. “케이크를 사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운전하던 여성이 물론 대형 SUV 차량에 치였어요. 몸이 공중에 건물 3층 높이로 붕뿔다가 머리부터 콘크리트 길 바닥에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두개골이 파열되고 두 팔의 뼈가 산



말리나 스피러가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용산 호텔 뷔페에서 방울토마토가 가득 담긴 볼을 집어올렸다. 유럽 ‘레드골드’ 토마토 홍보대사를 맡을 만큼 토마토를 사랑하는 스피러는 “매일 아침 토마토를 먹어보며 그날의 미각 상태를 확인한다”고 했다.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절망하다 미각 재활치료  
맛 기억하려 애쓰며 먹어

기억 사라질때도 있지만  
절망 않고 치료 이어가  
“먹는 즐거움은 내 인생”

산조각 났지만 스피러는 기적적으로 살았다. 의사들은 “몇 달 후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은 그러나 스피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미각을 다쳐다는 걸 알지 못했다. 친구들이 병문안 왔을 때였다. “제가 좋아하는 온갖 먹을거리를 사들고 왔지만,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어요. 엄청나게 좋아하던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먹지 못하기도 했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커피였다.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지만 맹물처럼 밍

밍했다. 아무런 맛이나 향을 맡지 못했다. 와인엔 달거나 혹은 쓴맛만 나는 붉은 액체에 불과했다. 바나나는 무처럼 밍밍하면서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 냄새가 역겨웠다. 버섯은 태운 스펀지처럼 쓰고 물경해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기도 했다. “어떤 고기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거 베이컨이잖아’라며 짹 짹 놀라더군요.” 스피러는 “미각을 잃으면서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했다. 미각 상실로 인한 우울증은 음식 분야에서 일해온 스피러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미각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혀의 미뢰(味蕾)와 입안의 침 분비액이 줄고, 맛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혀만큼 중요한 후각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삶의 활력을 잃고 우울증을 겪는 노인이 상당히 많다. 후각 손실은 치매의 초기 증

상이기도 하다. 스피러는 이러한 노년기 미각 기능 손상으로 인한 우울증을 조금 더 일찍, 강도 높게 겪었을 뿐이다. 스피러를 검사한 뇌신경과 전문의들은 “교통사고로 뇌에서 미각과 후각을 관장하는 부분이 손상된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여성의 경우 미각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미각 회복 훈련을 시작하라”고 했다. 음식 전문가답게 스피러는 자신만의 ‘미각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짰다.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의식적으로 맛과 향에 집중했어요. 커피를 마실 때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테이스팅 노트(tasting note)에 적힌 풍미 특징, 예를 들어 꽃향·레몬향·캐러멜향 등을 읽으며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식사 때는 음식을 최대한 다양하게 맛보려고 노력했다. 스피러는 “한식은 집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을 정도로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메인 요리와 함께 다양한 반찬이 팔려나와 미각을 훈련하고 강화하기에 특히 알맞아 더욱 자주 먹었다”고 했다.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미각이 차츰 돌아왔다. 단맛이 가장 먼저, 다음은 감칠맛이었다. “디저트 등 단 음식을 그리 즐기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로는 갈망(craving)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단맛을 찾게 되었어요.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생선도 하루 세 끼라도 먹을만큼 맛있었고요.” 나머지 맛들도 차츰 돌아왔다. 커피의 즐거움도 조금씩 천천히 되돌아왔다.

돌아오는가 싶던 미각은 갑자기 다시 사라지기도 한다. “어제까지 맛있던 통밀빵이 톱밥 씹는 맛이거나,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한 주는 예전처럼 달콤하다가 그다음 주에는 새콤하게 느껴져요. 어렵게 써 놓은 글이 모두 지워져 백지장이 되는 기분이지요.” 스피러의 미각은 상실과 복구를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다. 스피러는 절망하지 않고 미각 재활치료를 계속해오고 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한다는 건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김성윤 음식전문기자